

의도(思, *cetanā*)의 수행적 역할과 의의 - 초기경전(Pāli Nikāya)을 중심으로

곽정은*

메디테이션 랩 대표

herz2020@naver.com

I. 들어가는 말

II. 초기불교의 의도

III. 의도와 업 그리고 윤회

IV. 관찰 대상으로서의 의도

V. 마치는 말

요약문

붓다는 의도(思, *cetanā*)가 곧 업이라는 선언을 통해 행위 이전에 일어나는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에게 있어 의도는 주요한 인식 과정의 하나이며, 또한 초기불교의 다양한 문헌적 배경을 통해 의도는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며, 수행의 차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은 자신의 몸이나 호흡에 한정되어 신념처(身念處, *kāyaṇūpassanā*) 중심의 수행이 권장되어 왔다. 그러나 수행자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수행의 범주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의도는 몸과 마음의 작용 모두에 관여하며, 마음의 오염과 윤회, 해탈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또한 의도와 업은 상호적 관계에서 작동하기도, 의도가 업을 추동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인식 과정을 살펴보면, 접촉과 느낌은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갈애와 집착 혹은 희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 수료(2024.2).

론 등의 부정적인 결말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불교 수행은 이 과정에 개입하여 부정적인 흐름으로의 전개를 조정하도록 돕는다. 특히 의도는 느낌과 지각의 이전과 이후, 혹은 갈애의 발생 전에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수행자는 갈애 등을 다스리기 위해 의도를 수행의 대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보다 몸을 관찰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시각으로 인해, 몸의 감각과 동작을 관찰하는 수행이 권장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통해, 몸과 마음의 영역을 함께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수행자는 행위 이전에 나타나는 의도를 관찰하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곧 수행의 진보와 직결된다. 초기불교에서 의도는 갈애로의 확장은 막고, 해탈로 향하는 길을 닦기 위한 중요한 수행의 대상이다.

주제어

초기불교, 초기경전, 의도(思, *cetanā*), 수행, 업, 연기, 해탈

I. 들어가는 말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다. 또한 초기불교는 의도(思, *cetanā*)를 수행의 주요한 대상으로 다룬다.¹⁾ 의도는 초기경전(*Pāli Nikāya*)의 다양한 문헌을 통해 등장하며, 불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지점이 된다. 의도가 초기불교의 수행과 불교 심리학의 중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데브다스(Devdas)는 우파니샤드 문헌, 자이나교 시대의 논쟁, 마음과 의도의 문제 등 다양한 범주에서 의도를 분석한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가 넓은 만큼 초기불교와 관련한 내용은 제한적이다.²⁾ 하임(Heim), 시리만느(Sirimanne)의 경우 의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수행적 측면보다는 동기와 자유의지라는 측면에 집중해 분석하였다.³⁾ 또한 고스(Ghose), 임승택, 이필원,

1) 본고에서 ‘의도’는 빠알리어 ‘*cetanā*’를 의미한다. 맥락에 따라 ‘의도’로 번역될 수 있는 다른 빠알리어는 본고의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용하는 경전은 PTS를 기준으로 하되, 번역서를 일부 참고하였다.

2) Devdas 2008.

박재용은 의도와 업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접근하고 있다.⁴⁾ 본고는 상기 연구들을 기반으로 의도의 역할에 주목하되, 초기불교의 수행이라는 맥락에서 의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후대 아비담마(*abhidhamma*)의 심소법 등에서 제시되는 의도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초기불교 수행의 초심자들에게는 자신의 몸이나 호흡을 관찰하는 신념처(*身念處, kāyaṇūpassanā*) 중심의 수행이 권유된다. 본고는 수행자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수행의 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몸을 통한 감각적 대상은 점진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⁵⁾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은 마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경전에 드러나는 의도의 수행적 적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의도라는 마음의 작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의도의 의미를 중심으로, 수행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해탈과 윤회 과정에 의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의도와 업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업과 의도에 대한 붓다의 선언이 가지는 함의와 함께, 의도와 업이 만드는 역학적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의도 자체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의도의 관찰이 갈애의 제어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몸을 관찰하는 것과 의도를 관찰하는 것의 차이점과 함께, 의도의 수행적 가치에 대해 접근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의도의 관찰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 Heim 2003, 531-554; Sirimanne 2018, 30-44.

4) Ghose 2007; 박재용 2022; 이필원 2021; 임승택 2007.

5) 초기경전은 선정(禪定)의 발달에 따른 몸, 말, 마음의 삼행(三行)과 선지(禪支)의 중지에 대해 설명한다(AN IV. 410; SN IV. 217; SN IV. 294; SN V. 213). 수행자가 이선(二禪)을 성취하면 구행(口行)이 사라지므로 구행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사선(四禪)을 성취하면 신행(身行)이 사라지기에 신행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행자의 발전에 따라 수행 방법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II. 초기불교의 의도

초기불교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초기경전에서 의도는 ‘자유의지’나 ‘동기’ 등의 의미로 나타난다. 빠알리어 ‘*cetanā*’는 ‘인식하다(perceive)’, ‘생각하다(think)’를 의미하는 √cit에서 파생된 여성형 명사이며 ‘마음의 작용 상태’, ‘사고’, ‘목표’, ‘의지로서의 사고’라는 의미도 있다.⁶⁾ 이러한 의지 작용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라는 의미에서 ‘intention’, ‘volition’, ‘will’ 등으로 영역한다.⁷⁾ 물론 ‘자유의지’라는 광의로 이해하는 것에 반하여, ‘자극’, ‘동기’, ‘추동’ 등 협의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⁸⁾ 이처럼 ‘*cetanā*’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의도란 인간이 심신의 현상을 지향하는 마음 상태로 볼 수 있다. 초기경전에서 나타나는 ‘*cetan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사 용어 및 적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 불교 안에서 의도는 몸, 말, 마음의 ‘삼행(三行)’과 관련되어 자주 나타나는데, 이 경우 의도는 *sañcetanā*와 동의어처럼 사용된다.⁹⁾

인간은 몸(형태)과 마음(이름)으로 구성되며, 의도는 정신의 작용에 속한다. 『상윳따니까야(Saṃyutta Nikaya)』의 「위방가숫따(Vibhaṅgasutta)」는 의도에 대해 인간을 구성하는 명색(名色, *nāmarūpa*) 중 명(名, *nāma*)의 일부임을 설명한다. 즉 명색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정신활동은 명의 범주에 속하며, 사대(四大)혹은 사대로부터 파생된 물질은 색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¹⁰⁾ 또한 의도는 오온(五蘊)중에서 행(行, *sankhāra*)의 생멸과 관련된다. 「우빠다나빠리왓따숫따(*Upādānaparivattasutta*)」는 의도를 정신의 영역 안에서 더욱 구체화한다.

6) Davids (PED) 1993, 305; Malasekera, 1979-1989, 86-95.

7) Nyanatiloka 1972, 82.

8) Guenther 1976, 41-44.

9) Devdas, 2004, 184.

10) SN II. 3-4, 23-24; DN II. 62; 전재성 2014, 283; 전재성 2011, 680.

수행승들이며, 형성(行, *sankhāra*)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여섯 가지 의도(*cetanā*)의 무리, 즉 형상에 대한 의도, 소리에 대한 의도, 냄새에 대한 의도, 맛에 대한 의도, 감촉에 대한 의도, 사실에 대한 의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형성이라고 한다. 접촉이 생겨나면 형성이 생겨나고 접촉이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한다.¹¹⁾

상기 경전은 의도가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 중 행온(行蘊)의 구성요소임을 설명한다. 즉 감각의 대상과 의도가 만나 행온을 만들며, 의도는 삼사(三事)의 화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 결과라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의도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삼사의 화합을 행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의도는 육입처를 통해 발생하며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세계와 관련된다.¹²⁾ 정리하자면 의도는 신체라는 경계를 통해 생겨나고, 마음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촉매로서 기능한다. 즉, 의도는 정신(*nāma*)의 영역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작용에 모두 관여한다.¹³⁾

하지만 의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는 몸과 마음의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마음이 오염되는 과정에서 의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길레사왈가(*Kilesavagga*)」의 「제따나숫따(*Cetanāsuatta*)」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의 의도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곧 마음의 오염과 같고, 이 여섯 가지에 대하여 마음의 오염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한다.¹⁴⁾ 즉, 감각 대상에 대한 의도가 마음의 오염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끼침을 강조한다.

나아가 의도는 괴로움, 질병, 늙음, 죽음 등과 상호작용하여 윤회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uppāda왈가(*Uppādavagga*)」의 「제따나숫따」는 의도와 괴로움의 생멸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형상에 대한 의도가 생겨나고 유지되고 재생하고 유전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곧 괴로움, 질병, 늙음과 죽음으

11) SN III. 60; 위의 책, 637.

12) 안옥선 2009, 125, 245: 그는 “‘육경에 대하여 의도가 있다’는 말은 촉의 과정에 의도가 개입한다는 말”이라 설명한다(AN V. 359). 즉, 촉의 과정에 의도가 개입한다고 보는 것이다.

13) SN II. 65-67; SN V. 184

14) SN III. 233-234; 전재성 2014, 942.

로 향하는 이유라고 본 것이다.¹⁵⁾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언급된다. 각 감각기관에 대한 의도가 소멸하고 그치고 사라질 때 괴로움이 소멸하고 질병이 그치고 늙음과 죽음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의도는 감각과 대상의 접촉을 통해 생겨나고,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의도가 마음의 오염이나 괴로움,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에만 한정되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산째파나숫따(Saṅcetanāsutta)」에서 의도는 해탈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으로 설명된다. 육경에 대한 의도를 싫어함 그리고 떠남의 과정을 통해 해탈에 이르기 때문이다. 즉, 의도를 아는 것은 곧 해탈의 조건이 된다.

형상[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에 대한 의도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싫어하며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그가 해탈할 때 ‘해탈되었다.’는 궁극의 앎이 생겨나,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¹⁶⁾ [괄호는 논자]

상기 경전은 육경(六境)에 대한 의도에서 싫어하여 떠나야 하는 이유를 그것이 무상(無常, *anicca*) 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기에 나,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의도는 삼법인(三法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해탈과 열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초기경전의 설명에 따르면 의도는 정신과 물질 중에서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감각기관을 통해 몸과 마음에 모두 관여함으로써 행온의 형성에 기여한다. 의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선과 불선의 행이 결정된다. 이처럼 의도는 삼사화합, 행, 마음의 오염과 해탈 등 업과 연관된 불교의 주요한 원리

15) Ibid., 230; 위의 책, 938

16) SN II. 251; 위의 책, 534.

들에 개입한다. 따라서 의도는 수행자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대상이며 수행자의 인식 과정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의도와 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II. 의도와 업 그리고 윤회

붓다의 시대, 업에 대한 이해는 행위 자체에 치우쳐져 있었다. 행위가 곧 업이라 믿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다. 붓다는 의도를 통해 기존의 인도 사상에서 전통적으로 다루던 업과 윤회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접근을 제안했다.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하고 나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한다”¹⁷⁾라고 선언했다. 붓다의 가르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는 업을 신체적 활동에서 심리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의도가 업이라면 마음으로 의도하는 순간 곧 업이 발생하므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의 단계에서 이를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선업과 악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행위 중심의 관점에서 마음 중심의 관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둘째, “의도하고 나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한다”라는 것은 의도가 삼행보다 우선함을 설명한다. 몸, 말, 마음의 삼행을 일으키는 것은 의도이므로 의도를 다스린다면 신구의 삼행을 모두 다스려 선업은 증장시키고, 악업은 다스릴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붓다의 선언으로 인해 의도와 업의 긴밀한 관계가 강조되었다.

초기경전은 의도와 업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의도와 업은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나똥하숫따(Natumhasutta)」는 몸의 소유자를 설명하면서 의도와 업을 함께 언급한다. “이 몸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이전의 행위(kamma)로 만들

17) AN III. 415: *cetanāham bhikkhave kammaṃ vadāmi, cetayitvā kammaṃ karoti kāyena vācāya manasā.*

어진 것이며, 의도(*abhisāñcetaṃ*)로 만들어진 것이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⁸⁾ 윤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이 경구는 의도와 업이 함께 작동함을 밝히고 있다.

의도와 업은 이렇게 상호작용하지만, 의도가 업을 만드는 원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빠타마산제따니까숫따(*Paṭhamasañcetanikasutta*)」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집적된 업(*sañcetanikānaṃ kammāna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의도에 의해 업이 만들어지고 집적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도가 그 자체로 업을 발생시키는 추동적 기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집적된 업들은 현세나 다음 생이나 다른 생에 그 값을 받지 않고 고갈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집적된 업들이 현세나 다음 생이나 다른 생에 그 값을 받기 전에 괴로움의 종식에 이를 수 있다고도 나는 말하지 않는다.¹⁹⁾

이렇듯 의도는 업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업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서 언급되듯, 의도와 업은 결국 인간의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표현이 같은 경에 이어진다.

거기에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에서 생겨나고 고통을 초래하고 고통의 과보를 가져오는 세 종류의 신체적인[언어적인, 정신적인] 행위의 오염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 ...중략...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에서 생겨난 세 종류의 신체[언어, 정신]적인 행위의 오염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는 못삶(중생)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²⁰⁾ [괄호는 논자]

18) SN II. 64-65; 전재성 2014, 356.

19) AN V. 292-294; 전재성 2018, 2239-2241.

20) Ibid., 292-294; 위의 책, 2239-2241.

상기 경전은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가 삼행과 결합하여 윤회를 이끌며, 이 과정에서 의도가 윤회의 구체적인 양상을 결정함을 보여준다. 또한 「두띠야산짜 다니까숫따(*Dutiyasañcetanikasutta*)」 역시 착하고 건전한 의도에서 생겨난 신체적 행위가 있는 중생은 죽은 뒤에 즐거운 곳,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다.²¹⁾ 착하고 건전한 의도에 의한 삼행이 성취와 행복의 과보를 설명하며, 의도가 다음 생의 형태를 결정함을 강조한다. 「쏘나까야나숫따(*Soṇakāyanasutta*)」는 분노가 없는 의도와 삼행의 형성으로 분노가 없는 세상으로 윤회한다고 설명한다.²²⁾ 이처럼 의도는 업과 결합하며, 다양한 역학적 관계 내에서 인간이 윤회하는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붓다는 이렇게 역동적인 관계에 있는 의도와 업을 동일선상에 놓는 선언을 함으로써 의도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또한 수행을 통해 의도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고, 관찰을 통해 의도와 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한 것이다. 의도는 수행을 위한 주요한 관찰의 대상이다.

IV. 관찰 대상으로서의 의도

1. 연기와 의도: 느낌과 갈애의 제어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인식의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의도의 수행적 역할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뵈짜야숫따(*Paccayasutta*)」는 무명으로 시작하여 노사로 마무리되는 12연기의 과정을 설명한다.²³⁾ 또한 인식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마두뵈디까숫따(*Maduṇḍikasutta*)」는 접촉(觸, *phasso*), 느낌(受, *vedanā*), 지각(想, *sañjānāti*), 생각(尋, *vitakketi*),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戲論, *papañceti*) 순으로의 연결을 설명한다.²⁴⁾ 「뵈짜야숫따」와 「마두뵈디까

21) AN V. 299.

22) AN II. 233; 전재성 2018, 851.

23) SN II. 42.

숫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접촉(觸, *phassa*)과 느낌(受, *vedanā*)’의 순차성이다. 접촉에 연하여 발생한 느낌은 갈애, 집착, 윤회와 괴로움으로 이어지거나,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으로 이어진다. 접촉과 느낌은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말을 만들어 내는 원인인 동시에,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결말로 향하지 않기 위해 제어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근·경·식 삼사화합에 의한 접촉의 순간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은 어렵다.²⁴⁾ 하지만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느낌부터는 수행자의 능동적 개입이 가능하다.²⁵⁾ 이러한 의미로 여러 수행처들은 느낌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권유한다.

그런데 만일 접촉과 느낌 사이에 수행자가 개입하여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느낌에 앞서 갈애나 집착으로의 확산을, 혹은 지각과 생각으로의 확산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하감마위방가숫따(*Mahākammavibhaṅgasutta*)」는 삼행의 결과로서 느낌이 발생하는 과정에 의도적 행위가 개입함을 설명한다.

벗이여 뽀팔리뽀따여,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결과가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의도적(*sancetīnikam*) 행위를 하면, 그는 즐거움을 느낀다. 벗이여 뽀팔리뽀따여,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결과가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의도적 행위를 하면 그는 괴로움을 느낀다. 벗이여 뽀팔리뽀따여,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결과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의도적 행위를 하면, 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을 느낀다.²⁷⁾

24) MN I. 112.

25) AN V. 359.

26) 나냐포니까는 다양한 형태의 강렬한 감정을 만드는 연결을 끊기 위해서는 느낌의 단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 *Nyanaponika* 1996, 69; 정준영은 수행을 통해 이미 일어난 느낌을 조절하고 빠르게 이해한다면 느낌은 갈애의 원인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실천을 통해 느낌의 본래 성질인 무상함 역시 이해하게 될 것이라 주장. 정준영 2003, 193.

27) MN III. 209; 전재성 2009, 1474.

물론 본 경전이 연기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나, 의도적 행위가 느낌에 선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의도에 의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발생한다. 이 경전의 구조 안에서는 느낌의 결과로서 의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의 결과로서 느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일 신·구·의(身口意) 삼행의 차원에서 먼저 의도를 조절한다면, 그로 인한 느낌도 조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느낌의 발생 이전에 나타나는 의도를 대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앙굿따라니까야』의 「째타나숫따」는 느낌으로 이끄는 의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한다.

신체가 있을 때 신체적인 의도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난다. 수행승들이여, 언어가 있을 때, 언어적인 의도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난다. 수행승들이여, 정신이 있을 때, 정신적인 의도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난다. ...중략... 이러한 것들에 무명이 영향을 준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신체[언어, 정신, 터전, 기반, 영역,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²⁸⁾

상기 경전은 의도가 느낌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무명(無明, *avijjā*)이 영향을 주며, 무명이 소멸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가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무명을 소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의도를 알아차리면 느낌으로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의 관찰과 중지(멈춤)는 느낌으로의 확산을 조절할 수 있다. 일어난 느낌을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의도를 관찰하여 즐거움과 괴로움 등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의도를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면 느낌 뿐만 아니라 갈애로의 확산을 막

28) AN II. 157-158; 전재성 2018, 778-779.

을 수 있다.²⁹⁾

『상웃파니까야』의 「빠타마왱가(*Pathamavagga*)」는 육근의 접촉, 접촉으로 인한 느낌, 육경의 지각, 의도, 갈애의 순서로 무상함을 설명한다. 즉 접촉, 느낌, 지각의 결과로서의 의도를 강조한다.

시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형상[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시각의식[청각의식, 후각의식, 미각의식, 촉각의식, 정신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시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의 접촉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시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의 접촉에서 생겨난 느낌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형상[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에 대한 지각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형상[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에 대한 의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형상[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에 대한 갈애는 영원한가 무상한가?³⁰⁾

또한 『상웃파니까야』의 「뿃따망사숫타(*Puttamamsasutta*)」는 갈애의 소멸과 관련하여 의도의 역할을 강조한다. “의도의 자양이 완전히 알려지면 세 가지 종류의 갈애가 올바르게 알려진다. 세 가지 종류의 갈애가 완전히 알려질 때 고귀한 제자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였다.³¹⁾ 이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의도는 접촉, 느낌, 지각에 의한 결과이면서, 갈애로 가는 길목에서 중

29) DN III. 243-244; 전재성 2011, 1423-1424: “여섯 가지 접촉의 무리 곧, 시각접촉, 청각접촉, 후각접촉, 미각접촉, 촉각접촉, 정신접촉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느낌의 무리 ...느낌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지각의 무리 ... 지각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의도의 무리, 곧 형상에 대한 의도, 소리에 대한 의도, 냄새에 대한 의도, 맛에 대한 의도, 감촉에 대한 의도, 사실에 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갈애의 무리 곧, 형상에 대한 갈애, 소리에 대한 갈애, 냄새에 대한 갈애, 맛에 대한 갈애, 감촉에 대한 갈애, 사실에 대한 갈애가 있습니다.” 본 경전의 설명을 직접적인 발생과정의 순서로 보는 것은 분명하지 않으나, 여섯으로 이루어진 원리와 열거를 보면, 접촉, 느낌, 지각, 의도, 갈애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불교 인식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요소들이다.

30) SN II. 244-247; 전재성 2014, 519-526. 이 외에도 접촉, 느낌, 지각, 의도, 갈애 순으로 의식의 흐름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두티야왱가(*Dutiavagga*)」, SN 250; 「옥칸띠왱가(*Okkantivagga*)」, SN III. 225; 「우빠다왱가(*Uppādvagga*)」, SN III. 228-229; 「킬레사왱가(*Kilesavagga*)」, SN III. 232-234; 「마하사뿃타나숫타(*Mahāsātipaṭṭhanasutta*)」, DN II. 290-315 등이 있음.

31) SN II. 100; 위의 책, 384-385.

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데브다스는 이와 관련해, 접촉에서 연유한 정신적 상태가 이와 같은 순서로 나열되었다는 사실은 의도가 접촉, 느낌, 지각에 의해 생겨난다는 점, 또한 의도 없이는 갈애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³²⁾

결론적으로 의도는 느낌이나 지각 이전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느낌과 지각 이후, 갈애의 발생 이전에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2연기와 인식의 진행 과정에서 느낌은 갈애를 만드는 조건이 되나, 상기 경전에서는 의도가 갈애를 만드는 조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의도를 알아차리고 의도의 작용을 멈춘다면 갈애로의 확장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기구조 안에서 의도는 행(行, *saikhāra*)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초전법륜(初轉法輪)」으로 잘 알려진 「담마짜까빠왓따나 왓카(*Dhammacakka Pavattana Vagga*)」에 따르면 괴로움의 원인[集聖帝]은 갈애이다.³³⁾ 집성제는 세 가지 갈애로 설명되고, 이들의 제거를 통해 멸성제(滅聖帝, *nirodha*), 즉 열반(涅槃)을 얻는다.³⁴⁾ 이처럼 붓다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갈애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고 버려지고 포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³⁵⁾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갈애의 발생 직전 단계인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 의도 역시 접촉, 느낌, 지각에 의해 조건화되며, 이렇게 조건화된 의도 없이는 갈애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⁶⁾ 그러므로 의도의 수행적 역할이 드러난다. 의도는 갈애로 향하는 길목에서, 갈애로의 확장을 막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의도를 다스리지 못하면 갈애로 확장될 것이며, 의도를 다스리면 갈애로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

상기 경전들을 통해, 의도는 느낌 이전에 관찰이 가능한 대상임을 확인할 수

32) Devdas 2004, 182.

33) SN V. 421.

34) 열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nibbāna*의 ā장음을 단음[*nibbana*(Skt. *nirvāna*)]으로 해석하는 경우 ‘nis’와 ‘vana’의 합성으로 ‘번뇌와 갈애의 숲이 없는’ 것으로도 해석한다.

35) SN III. 157.

36) Devdas 2004, 182.

있다. 또한 의도와 갈애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갈애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의도를 관찰할 것이 요구된다. 의도는 단순히 갈애의 전 단계로서가 아니라 느낌을 통제할 수 있는 역동적 기전으로 그 의미가 승격되며, 더 나아가 무명을 소멸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느낌을 제어하고 갈애를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자는 의도를 파악하고 면밀히 살펴 부정적 확장을 멈추어야 한다.³⁷⁾

2. 의도의 관찰과 현대적 적용

「마하사띠뻬타나숫따(*Mahāsatiṭṭhanasutta*)」는 사념처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룬 경전으로, 수행의 토대를 닦는 근거가 되어 왔다. 호흡을 관찰하거나 행·주·좌·와 등 몸을 기반으로 하는 수행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으로 강조되었고, 몸을 먼저 충분히 관찰하고 나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명상 지도의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³⁸⁾ 인간이 느낌을 수월하게 경험하는 근원지가 몸이기 때문에, 마음보다 몸의 느낌을 먼저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엄격한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몸의 자세를 인식, 관찰하는 것은 수행의 출발점이 된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경전 안에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수행의 대상으로 순서화한다는 직접적인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렇게 몸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여겨지게 된 배경에는 몸을 관찰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시각에 원인이 있어 보인다. 『위숫디막가(*Visuddhimagga*, 淸淨道論)』는 “몸(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선명하게 된 사람만이 정신을 파악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안된다”고 설명한다.⁴⁰⁾ 이러한 내용은 현대 남방 상좌부 불교의 수행 과정을 정리하는

37) 남일희는 의도에 의해 일어난 촉발을 선한 수행기제로 관찰하여 이의 소멸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 남일희 2019, 126-127.

38) 「가나까목갈라나숫따」는 수행의 점진적인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초보자를 위해 몸의 동작에 대한 알아차림을 우선적으로 안내한다. MN III. 1; 동작에 대한 알아차림은 본격적인 수행으로 들어가는 바탕을 만드는 수행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모정 2018, 312.

39) Nyanaponika 1996, 64.

40) Vism 592.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우바킨(U Ba Khin)은, 몸에서 생겨나는 느낌은 다른 형태의 느낌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위빠사나의 초보 수행자는 몸이 변화하는 느낌을 통해 보다 쉽게 무상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⁴¹⁾ 한자경은 몸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느낌과 작용을 포착해 머무른다면 번뇌 망상의 힘에 이끌려 가는 흐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몸의 관찰을 완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느낌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²⁾

초보 수행자의 경우 빠르게 변하고 확장하는 마음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현재 경험되는 몸의 감각과 동작 등을 관찰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의 깊이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수행자의 관찰 능력은 발전한다. 따라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으로 알아차림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의도의 관찰은 몸과 마음의 영역을 함께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몸의 감각으로 제한했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도에 초점을 맞춘 행선(行禪)은 몸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수행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 관찰하는 수행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움직이려는 의도와 움직이는 몸을 관찰하여 마음의 관찰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상좌부 불교의 수행 전통을 계승하는 미얀마의 마하시 사야도(Mahāsi Sayadaw)는 몸의 관찰에 이어 의도를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마음챙김과 집중력이 강해지면 걷기 시작하거나 움직이기 전에 걷기 위한 의도나 움직이기 위한 의도를 주시할 수 있고, 그 의도의 결과로 일련의 움직임이 일어나며, 의도에 의해 모든 물리적 현상이 일어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⁴³⁾ 또한 그는 행선의 과정에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도에 집중한다면 몸과 마음의 생멸 현상을 완전히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41) U Ba Khin 1995, 4; 정준영은 현대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발전된 계기와 각각의 수행법을 소개하며 집중력이 약한 초보 수행자를 위해 호흡 집중의 방법이 활용되었음을 설명한다. 정준영 2020, 63-82.

42) 본 설명은 몸을 대상으로 관찰함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사념처의 진행 순서를 설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자경 2008, 101-102.

43) Mahāsi 2016, 182.

걸을 때마다 ‘의도’와 ‘걷는다는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한다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도와 몸의 움직임은 완전히 구별되어 인식된다. 의도라는 정신적 과정을 몸과 섞지 않고 서로 다른 과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당신은 걷고 싶은 의도를 이해하게 된다. 한 번의 밀어내는 발의 움직임에는 별도의 작은 움직임들이 동반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단지 의도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⁴⁴⁾

이러한 실천법은 앞서 살펴본 초기경전의 설명과 흐름을 같이 한다. 의도는 몸의 느낌 이전에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며, 의도를 관찰하고 나서 이후 발생하는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의도가 느낌 이전에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몸을 관찰할 때 의도와 몸을 함께 알아차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대상의 확장은 몸과 느낌뿐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수행의 발전에 따라 몸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마음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도울 수 있다. 『위숫디막가』에 따르면 이처럼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지혜(名色區別知, *nāmarūpa pariccheda ñāna*)’는 견정(見正)의 시작으로 혜정(慧正)으로의 진입을 의미하기도 한다.⁴⁵⁾

수행자는 행위 이전에 일어나는 의도를 관찰하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행위 전에 일어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악한 행위를 줄이고 선한 행위를 늘릴 수 있는 훈련이 된다.⁴⁶⁾ 즉, 의도에 대한 파악은 선업을 늘리고 악업을 줄이는 계기가 된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몸과 말을 조건 짓는 것은 정신이므로,⁴⁷⁾ 수행자의 관찰 대상은 몸의 의도를 관찰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신의 의도를 관찰하는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 수행자는 의도를 통해 몸과 마음의 영역을 모두 관찰하여 수행의 진보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44) Ibid., 184.

45) Vism 594, 597.

46) 정준영 2019, 142.

47) 맥 더못(McDermott)은 의도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양분할 수 있음을 설명. “의도는 둘로 나뉜다. 정신적인 행위로서 의지 그 자체, 그리고 그 의지로부터 만들어진 몸과 말의 행동이다.” McDermott 1984, 26.

V. 마치는 말

지금까지 초기불교의 의도, 의도와 업의 관계, 느낌과 갈애의 제어 방법으로서의 의도, 현대 상좌부 불교 전통에서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의도가 곧 업이다’라는 붓다의 선언을 중심으로 초기경전에서 의도가 다루어진 맥락을 살펴보았다. 의도는 마음이 오염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해탈과 윤회를 결정짓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의도와 업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삼행과 결합하여 각각의 의도로 발전되는 양상 속에서, 업과 의도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작동하며 윤회의 형태를 결정한다. 붓다는 수행을 통해 의도의 관찰이 가능하고, 관찰을 통해 의도와 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찰 대상으로서 의도를 제안하였다. 초기불교 경전의 다양한 맥락을 통해 의도가 느낌이나 갈애보다 선행함을 확인하고, 갈애로의 확장을 막기 위해 의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몸과 의도를 관찰함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의도의 관찰은 붓다의 핵심 가르침을 통찰하는 것이며, 수행의 진보를 거두는 것과 직결된다. 붓다는 “모든 결박을 끊어버려라.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하라. 불멸의 길을 구하여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수행하라”⁴⁸⁾고 강조했다.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갈애로 확장되는 마음을 단속할 수 있으며, 해탈로 향하는 길은 가까워질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들이 명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불교의 수행 방법이 널리 소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행자의 노력과 발전 여하에 따라 수행의 방법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초보 수행자의 경우 몸의 관찰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나, 숙련된 수행자의 경우 의도를 통해 몸과 의도를 동시에 관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중에서 지혜의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며, 초기불교에서 의도는 수행 대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48) SN III. 148; 전재성 2014, 706.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 AN *Āṅguttaranikāya*, ed. by R. MORRIS, 6 vol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61.
- MN *Majjhimanikāya*, ed. by V. TRENCKNER, 4 vol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9.
- SN *Samyuttanikāya*, ed. by M. L. FEER, 6 vol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91.
- DN *Dīghanikaya*, ed. by T.W. RHYS DAVIDS and Carpenter ESTLIN, 3 vol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5.
- Vism *Visuddhimagga*, ed. by C.A.F. RHYS DAVIDS and D. LITT.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5.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AN, Ok-sun 안옥선. 2009. 「불교덕윤리에서 성품의 중심으로서의 ‘행’(saṅkhāra)」 (“*Saṅkhāra* as the Central Concept of Character in Buddhist Virtue Ethics”),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23, 221-260.
- _____. 2009. 「행(saṅkhāra)의 그침’에 대한 한 이해」 (“An Understanding of *Saṅkhāra* Cessation”), 『대동철학』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49, 115-138.
- CHEON, Jae Seong 전재성, tr. 2009. 『맛지마니까야』 (*Majjhimanikaya*), Seoul: Korea Pāli Text Society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_____. 2011. 『디가니까야』 (*Dīghanikaya*), Seoul: Korea Pāli Text Society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_____. 2018. 『앙굿따라니까야』 (*Āṅguttaranikāya*), Seoul: Korea Pāli Text Society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_____. 2014. 『쌍윳따니까야』 (*Samyuttanikāya*), Seoul: Korea Pāli Text Society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_____. 2018. 『청정도론-비숫디막가』 (*Visuddhimagga*), Seoul: Korea Pāli Text Society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DEVIDAS, Nalini. 2004. *A Study of Cetanā and the Dynamics of Volition in Theravāda Buddhism*, Montreal: Library and Archives Canada.
- GHOSE, Lynken. 2007. “Karma and the Possibility of Purification: An Ethic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Doctrine of Karma in Buddhism”, *Journal of Religious Ethics*, vol. 35, no. 2, 259-290.
- GUENTHER, Herbert. 1976.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the Abhidharma*, Delhi: Motilal Banarsidass.
- HAN, Ja kyoung 한자경. 2008. 「지와 관, 선정과 사념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Buddhist Practice: Samatha and Vipassanā, *Sati-paṭṭhāna* and *Jhāna-samādhi*”),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19, 81-117.
- HEIM, Maria. 2018. “The Aesthetics of Exces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71, no. 3, 531-554.
- JEONG, Jun Young 정준영. 2003. 「대념처경(*Mahāsati-paṭṭhāna-sutta*)에서 보이는 수념처(受念處)의 실천과 이해」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mplation of feelings (*Vedanānupassana*)”),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7, 183-242.
- _____. 2019. 『있는 그대로』 (*As It is*), Seoul: Editor 에디터.
- _____. 2020. 「현대 위빠사나 수행법 비교-순론, 고엔카, 마하시, 쉐우민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dern *Vipassanā* Meditations: Focusing on SunLun, Goenka, Mahasi, Shewoomin *Vipassanā* Masters”), 『한국교수불자연합 학회지』 (*Journal of Buddhist Professors in Korea*), vol. 26, no. 2, 63-82.
- LEE, Mojung 이모정. 2018. 「‘동작에 대한 분명한 앎’과 삼빠잔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lear Comprehension of Movement (*Kāyānupassanā sampajāna*)’ and *Sampajāññā*”),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56, 305-332.
- LEE, Pil won 이필원. 2021. 「의지, 레고 조각을 이어 세상을 만들다」 (*“*Cetanā*, Building the World with Lego Bricks”), in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Cetanā, Is It Volitional or Not?*), Seoul: Unjusa 운주사, 45-102.
- LIM, Seung Taek 임승택. 2007. 「업(*karma*) 개념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한 고찰 - 제식주

- 의에서부터 초기불교까지」 (“On the Development of Karma Conception: From the Ritualism to Early Buddhism”), 『철학연구』 (*Philosophia*), vol. 103, 150-180.
- Mahāsi Sayadaw. 2016. *Manual of Insight*, Somerville: Wisdom Publications.
- MALASEKERA, G. P. 1979-1989. *Encyclopedia of Buddhism*, vol. 4, Homagama: Government of Sri Lanka.
- McDERMOTT, James Paul. 1984. *Developments in the Early Buddhist Concept of kamma/karma*, New Delhi: Munshiram Monoharlal Publishers.
- NAM, Il-hi 남일희. 2019. 「마음작용에서 촉발(*phuṭṭha*)의 역할에 관한 연구- 상좌부 불교 수행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phuṭṭha* in the *cetasikā*”),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Nyanaponika Thera. 1996. *The Heart of Buddhist Meditation: Satipaṭṭhāna: A Handbook of Mental Training Bbased on the Buddha's Way of Mindfulness*, Sri Lanka: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 Nyanatiloka Thera. 1972. *Buddhist Dictionary*, Sri Lanka: Buddhist Pulication Society.
- PARK, Jae Yong 박재용. 2022.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業說) 고찰: 업설의 용례와 유형」 (“A Study on Karma Theory in *Nikāya*: Focusing on the Usage and Types of Karma Theory”), 『종교교육학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vol. 71, 193-209.
- RHYS DAVIDS, T. W. and William STEDE. 1993. *Pali-English Dictionary*.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
- SIRIMANNE, Chand. 2018. “The Unique Perspective On Intention (*Cetanā*), Ethics, Agency, and the Self in Buddhism,” in *Applied Ethics in the Fractured State*, ed by Bligh Grant, Joseph Drew, and Helen E. Christensen, Bingley: Emerald Publishing, 31-44.
- U Ba Khin Sayagyi. 1995. *The Essentials of Buddha-Dhamma in Meditative Practice*, Berkeley: The Dharma Net International.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Intention (*cetanā*) in Early Buddhist Practice

KWAK, Jung Eun
CEO of Meditaion Lab

Through the declaration that “*cetanā* is karma,” the Buddh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ntion, which occurs before action. Intention is a major process in humans, and it has been treated as an important area of practice in the literature of early Buddhism. Nonetheless, research on this topic is somewhat lacking. In meditation practice, the focus is often restricted to the body or breath, with recommendations favoring body-centered techniques. As practitioners grow and develop, however, there is a need to broaden the scope of their practice.

In examining the process of perception as described in early Buddhist scriptures, the concepts of contact (*phassa*) and feeling (*vedanā*) play a role in giving rise to negative such as longing, obsession, or delusion in the process of human perception. Buddhist practice intervenes in this process and helps to adjust the development of negative psychological flow. In particular, intention appears before and after feelings and perceptions, and even before the occurrence of year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practitioner to apply intention as the object of practice in order to control yearning.

By focusing on intention, we can proceed to the practice of recognizing the areas of the body and mind together. The practitioner should be aware of and observe the intention that precedes an action. This is directly linked to the progress of practice. In early Buddhism, intention is considered an important object of practice to prevent the expansion of yearning and pave the way for liberation.

Keywords

Early Buddhism, Pāli Buddhist scriptures, intention (*cetanā*), Buddhist Meditation, action (*kamma*), dependent origination (*paṭiccasamuppāda*), liberation (*vimutti*)

2024년 05월 09일 투고

2024년 06월 09일 심사완료

2024년 06월 16일 게재확정